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개회사

2025. 11. 13.(목)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 용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 김현정 의원님, 서유석 금투협회장님,
그리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금융소비자보호 기조에 발맞추어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은 금융투자상품의 설계·판매 단계에서
소비자보호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강화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II 그간의 평가와 과제

지난 몇 년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 설계부터 판매까지의 쏠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 장치 마련입니다.

금융회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의무 준수입니다.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설명함으로써,
상품위험 등 거래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상품 제조사 및 판매사 각각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특히,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며,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의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하여 상품을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Ⅲ 맺 음 말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
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금융감독원도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감독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